산불·정국 혼란 속 국민 마음 보듬다

봉축위원회, 4월 26일 동국대 운동장서 연등법회 · 어울림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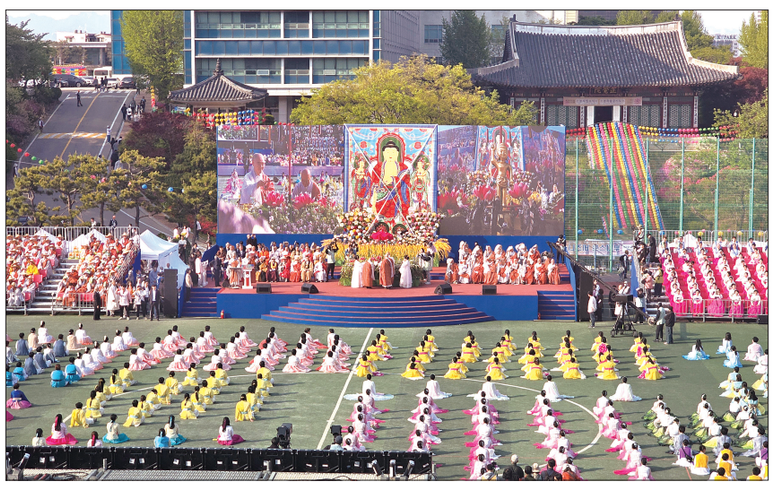
1만여 사부대중 동참 '환희' 물결
진우 스님 "지혜 · 자비 실천" 당부
40여개 연희단 1000명 공연 펼쳐

글=임은호 기자 · 사진=신중일 · 김내영 기자

4월 26일 서울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봉행된 연등법회는 연등행렬의 의미를 알리고 세상의 평안과 마음의 자비를 염원하는 법석이었다. 특히 최근 영남 지역 대규모 산불 등 국가적 재난과 정국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치유와 화합' 메시지를 담았다.

이날 법회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자광 대종사,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중앙종무기관 부·실장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각 종단 대표, 조계사, 봉은사, 도선사 등 주요 사찰 신도와 포교사단·국제포교사회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아기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을 통해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청정하고 맑은 생활, 지혜를 밝히는 삶을 발원하며 세상에 평안과 마음에 자비가 가득하길 기원했다.

연등법회는 선명상과 함께 시작됐다. 봉축위원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봉행사로 모두가 마음속 등불을 밝힐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먼저 대규모 산불로 생을 다한 이들과 재해민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연등의 자비로운 빛이 다시금 희망의 등불이 되길 기원했다. 이어 사회가 마주한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화합과 상생의 길을 찾길 서원한 진우 스님은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 따듯한 시선, 행동하는 자비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며 그 빛이 모든 어둠을 거두고 평화와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길 서원했다. 이어 조계종 종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붓다차리타〉 경전 봉독으로 부처님 오신 뜻을 전했다.


4월 26일 서울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봉행된 연등법회.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발원문에서 "일체가 하나임을 깨달아 시비와 분별을 떨치고 화합의 공동체로 평화롭게 살아가겠다"면서 "고통받는 세상의 모든 인연들이 마음의 자비로 온 세상이 평안하도록 끊임없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어린이 연희단의 흥겨운 율동.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기원문에서 "오늘 불제자들이 밝힌 연등불빛이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불빛으로 비춰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면서 사바세계 모든 중생이 품 넓은 부처님 세상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길 염원했다.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기원 메시지'도 발표됐다. 법회 참석 대중은 총지종 통리원장 록경 정사가 낭독한 메시지에서 모두가 한마음을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을 선언했다. 대중은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바로 알아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분쟁이 평안과 자비로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고 서로를 이해하며 상생하는 세상을 열어가자"면서 "평안과 자비, 화합과 공존의 가치를 발원하는 우리의 작은 기도가 모여 큰 바람이 돼 마침내 함께하는 세상, 평화로운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정진하자"고 말했다.

연등법회에 이어 연희누리의 축하무대를 중심으로 한 어울림마당이 시작됐다. 쾌청한 날씨만큼 밝은 얼굴의 연희단은 신명나는 율동으로 동참 대중들을 축제의 장으로 이끌었다. 40여개 단체의 어린이·청소년·청년 율동단과 등단별 연희단 1000여 명의 활기찬 율동에 참석대중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어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의 연등행렬 행진 선언으로 본격적인 연등행렬의 시작을 알렸다. 흥인지문에서부터 시작된 연등행렬은 조계사까지 이어졌다. 행렬의 마지막은 종로 보신각 앞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대동한마당. 불자와 시민, 외국인, 남녀노소를 넘어 하나 되는 화합의 법석으로 쏟아지는 꽃비 아래 강강수월래와 기차놀이를 하며 모두가 하나됨을 느꼈다.

행렬을 포함한 연등회 주요 행사는 연등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돼 해외에서도 서울의 밤을 수놓는 등불과 평화의 메시지를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Impressed!" 외국인도 감탄한 연등행렬

〈감동적〉

"세계 주요 축제 반열 가치 충분"
"불교 공부 하겠다" 관심 전하기도

연등회는 이제 한국불교만의 축제가 아니다. 4월 26일 흥인지문에서 조계사까지 이어진 연등행렬을 관람한 외국인들의 입에선 연신 'Impressed(감동적)!'가 터져 나왔다. 또 카메라로 순간 순간을 담아내며 연등에 푹 빠진 모습을 보였다.

이날 연등 하나하나를 지켜보던 외국인들은 다양한 캐릭터와 형태의 연등에 큰 감동과 재미를 전했다.



올해 연등회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참가해 연등회와 불교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종묘 인근에서 흥겨운 전통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연등행렬을 즐긴 독일 출신 다니엘 씨는 "영어로 'lotus lantern'이라고 해서 연꽃 모양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귀여운 캐릭터와 거리를 가득 채우는 웅장한 용 등 다양한 모습에 놀랐다"면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얼굴로 다정하게 함께 걷는 모습에서 인간애가 느껴진다. 한국인의 협동심도 이런데서 쌓여진 게 아닐까?"라고 감동을 전했다.

프랑스에서 9일 일정으로 관광을 온 질로 씨는 "한국을 떠나기 직전, 아름다운 경험을 했다"면서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쓰리피오 연등을 이번 행렬의 '원톱' 연등으로 꼽았다. 그는 "연등행렬 소식을 텍스트로 접했을 때는 꽃 모양 등만 상상했다"면서 "이렇게 훌륭한 것은 더욱 적극 알려야 한다. 흥미로운 연등 소개와 다양한 퍼포먼스에 대한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평했다.

자국의 축제를 떠올린 외국인도 있었다.

아일랜드 출신 조지 씨는 "연등행렬을 보고 고향의 '세인트 패트릭 데이'가 떠올랐다"면서 "3월 중순이면 전 세계에서 치러지는 세인트 패트릭 데이처럼, 연등회도 충분히 세계 주요 축제 반열에 오를 가치가 있어보인다"고 감탄했다.

인도에서 온 럭키 씨도 "인도의 '다왈리'처럼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이 인상적"이라며 "종로 전체가 형형색색 빛으로 물든 모습이 큰 감동을 준다"고 말했다.

불교에 대한 관심을 전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1년 간 교환학생 생활을 한 호주 출신 라민 씨는 "두 달 후면 호주로 돌아가는데 지난주 콜드플래이 내한공연과 연등행렬 관람은 한국 생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며 "호주에 돌아가면 불교사찰을 알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온 로라 씨도 "국가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수백년간 다양한 역경을 견뎌오면서도 연등행렬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불교가 가진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일 듯하다"면서 "불교에 대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효찰대본산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 주 사
주 지 성효
사부대중 일동
(18347)경기도 화성시 용주로136(송산동)
(031)234-0040/팩스(031)234-2818
불기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

